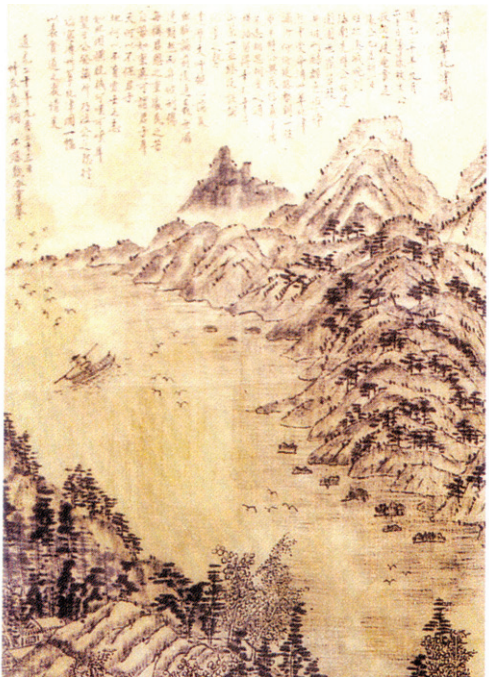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하늘은 어찌 군자를...’ 초의 탄식



유배길에 오른 추사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며 초의가 그린 '제주화북진도'

유배길에 일지암 들러 초의와 담론 초의 <제주화북진도> 그리며 안녕 빌어

한성을 떠나 늦게 해남에 도착하셨는데, 앞서서 공은 영어(溟圖)의 몸으로, 죄 없이 태장을 맞아...

나는 길에 머물게 되니, 불행 중에 다행한 일이다. 산차(山茶)를 들며 밤이 새도록 세상 돌아가는 형세와 달마대사의 <관심론>과 <월맥론>을 담론함에 앞뒤로 모든 뜻을 통달하여 빠짐없이 금방금방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몸에 형벌의 상처를 입었으나 매번 입금 은혜의 지중함을 칭송하고 백성들이 처하고 있는 괴로움을 자신의 괴로움인 양, 중히 여기기 참으로 군자라고 할 만하다. 하늘은 어찌하여 군자를 보호하지 않고, 땅은 어찌하여 크나큰 선비의 뜻을 길러주지 않아, 이처럼 곤경에 떨어지게 하여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가. 탄식하고 또 탄식할만한 일이다. 이튿날 공은 적소로 떠날때 공의 원망스러운 귀양살이에 눈물 흘리며, 비로소 <제주화북진도> 한 폭을 그려 나의 충정을 표하는 바이다. <道光二十年九月初二日薄暮 秋史公投泊一枝庵貧道處 公九月初二日 離於漢城 晚到海南 先時公被建國圍 無罪脊杖 身被刑酷 顏色憔悴 然中受命濟州華北津諒所 仰仰延路 暫到一枝庵 平時 公與我信義重厚 不忘相思相愛之道 橫路留得 幸於幸耳 山茶一盃 終夜談論俗塵之勢 達磨大師觀心論及血脈論 前後通儀 無漏難對 然而身被刑傷 每稱君恩之重 處民之苦 自苦如重真可謂君子耳 天何以不保君子 地何以不育宏士之志 如此困橫脫機 可歎可歎耳 翌日公發諒所 乃泣公之愆行 始寫濟州華北津圖一幅 以表貧道之衷情矣)>

서로 사모하고 아끼는 도리를 잊지 않았던 초의와 추사, 이들의 우정은 난간의 시기를 거치면서 더욱 돈독해졌다. 박동춘(중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추사가 동지부사에 임명된 것은 1840년 6월이다. 용방강이나 완원으로 인해 맺어졌던 옛 벗들과 즐거운 해후를 기대했던 추사, 이런 그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동지부사로 임명된 후, 7월 김홍근의 탄핵으로 이미 돌아가신 추사의 부친 김노경의 벼슬이 모두 삭탈되는 참화를 입었던 것. 풍전등화처럼 어수선했던 추사의 신변, 이미 사태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 간파했던 그는 8월 초, 향리 예산으로 몸을 피했지만 8월20일 한양으로 끌려와 추국(推鞠)을 당하고 만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추사를 도운 이는 조인영이다. 우의정이었던 그는 추사의 무고를 주장하는 상소를 올려 추사의 목숨을 구했지만 제주 대정리로 유리안치 되는 횡액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이 해 9월 2일, 유배 길에 오른 추사, 그가 일지암에 도착한 것은 9월 20일 저녁 무렵이었다. 초체하고 참담한 물골로 일지암을 찾았던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던 초의, 작디작은 모옥(茅屋), 일지암에서 산차(山茶)를 앞에 두고 펼쳤던 이들의 충심어린 담론(談論)은 필부(匹夫)의 망언(妄言)과는 분명 다른 것이다. 이튿날 안도의 이진나루에서 추사와 전별할 때 초의는 성심어린 기원을 담아 <제주화북진도>를 그린 것으로, 초의의 상상에서 나온 작품이다. 1840년 9월23일에 그린 <제주화북진도>는 분명 모진 풍랑을 헤치고 가야하는 추사의 무사안녕을 간절히 기원한 초의의 염원이 담긴 작품이다. 이 그림의 화제(畫題)에는 이들의 절절한 우정외에도 추사의 장부다운 기개와 충심이 드러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840년 9월 20일 막 해가 저문 후, 추사공이 일지암의 내 처소에 들러 머무르셨다. 공은 9월 2일

“소외된 이들 없기를...” 달리고 또 달리고

진오 스님(‘(사)꿈을 이루는 사람들’ 대표, 구미 대둔사 주지)

식밖에 범의를 입고 살겠다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쫓아 해탈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출가자의 본분사가 그렇게 한 줄짜리 생각처럼 간단한 일은 아니다. 지장보살이 텅 빈 지옥을 보기 전까지 해탈하지 않겠다고 서원한 것을 보면 이 사바가 간단치 않음이다. 출가자도 사바 속에 있음이라 그 본분 또한 간단치 않음이다. 지장보살이 텅 빈 지옥을 기다린다면, 이 땅에서 소외된 이들이 사라지는 날을 기다리는 이가 있다. ‘달리는 스님’으로 알려져 있는 마라톤러 진오 스님이다.

“스님,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발목이 예전만 못하네, 달리는 데는 지장 없습니

다.” 2월 21일 서울 조계사에서 스님을 만났다. 하얀 입김 뒤에서 스님이 기자의 합장을 받는다. 구미 대둔사 주지인 스님은 ‘(사)꿈을 이루는 사람들’의 대표와 ‘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다. 두 단체는 국제결혼, 취업 등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이주해온 이주민들의 어려움을 돕고 해결해주기 위해 설립됐다. 스님의 직함이 말해주듯이 스님이 이 땅에서 맡은 소임은 소외된 이주민들을 돕는 것이다. 그리고 스님은 그 소임을 ‘달리기(마라톤)’를 통해 이뤄내고 있다. 스님은 재일 마라톤 복지 사업 홍보를 위해 달린다. 스님이 1km를 달릴 때마다 후원자들은 1백원의 후원금을 기부한다. 스님은 지금까지 약 10년 동안 1,600km를 달렸다. 스님이 본격적으로 후원금을 걷고 달리기 시작한 것은 2011년 4월부터이며, 지금까지 모금된 금액은 약 8천만원이다. 그리고 그가 달리는 마라톤은 108km, 200km, 308km, 500km 등 초장거리 울트라마라톤이다.

“스님 제작년 기억나시죠? 108km 울트라마라톤.” “그럼요, 기억나죠.”

스님은 일주문 쪽을 바라보며 당시를 회상했다. 2011년 4월 24일, 16시간 45분을 달려 108km를 완주하고 막 도착한 스님은 도착하자마자 급한 숨을 몰아쉬며 베트남 이주노동자토안(당시 27세)을 찾았다. 토안도 스님이 도착하기 3시간 전부터 스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토안을 본 스님은 말없이 토안을 끌어안았다.

토안은 2007년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왔다. 그는 한국생활 3년째인 2010년 7월 교통사고로 두개골 절반을 드러내야만 했다. 3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아야 했고, 그로 인해 그동안 모아놓았던 돈은 수술비로 다 들어갔다. 토안의 생활은 말이 아니었다. 소식을 들은 진오 스님은 200여 명의 동참자를 모아 108km를 완주하면 1인당 1만800원(100원/1km)을 기부받아 토안을 비롯한 어려움에 처한 이주민을 돕기로 한 것이다. 스님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100km 이상을 달리는 울트라마라톤을 시작한다.

진오 스님이 처음 누군가를 돕겠다는, ‘봉사’의 발원을 한 것은 26년 전이다. 경북의 한 공군부대에서 군법사로 있었던 스님은 교통사고로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절망감 속에서 스님은 주위로부터 작은 위로들을 경험한다. 그 작은 위로들이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겐 큰 위로가 되고 그 위로 희망을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스님은 전역 후 ‘불교간병인회’와 ‘자비의 전향’을 통해 아픈 군인들을 보살폈고, 2002년에는 사고로 눈을 잃었을 때 받았던 보상금으로 구미의 한 사찰에 외국인 근로자 쉼터 ‘보현의 집’을 만들었다.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이주민들을 돕기 시작했다. 스님은 현재 ‘꿈을 이루는 사람들’과 ‘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해 가정 폭력에 시달리는 결혼 이주 여성들과 탈북민 등 한국

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며, 법률 상담 의뢰지원, 통번역 지원 등의 프로그램으로 소외된 이들을 돕고 있다.

“스님, 그런데 왜 하필 마라톤인가요? 힘들지 않아요? 다른 방법도 많이 있을 텐데요.”

“힘들죠.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후원금을 받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후원이라는 건 먼저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후원을 호소하는 것보다 좀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제가 잘하는 게 마라톤이라 마라톤을 시작했죠. 그러니까 저는 두 다리로 소리치고 있는 거죠.”

스님의 마라톤은 2001년 처음 10km 대회에 참가하면서 시작됐다. 스님은 1998년 말부터 구미에 있는 금오종합사회복지관의 부장 소임을 보게 되는데, 2000년 초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때 주위로부터 마라톤을 권유 받았고, 시작하게 됐다. 하프코스과 풀코스를 경험하면서 스님은 본격적으로 마라톤을 시작했다. 스님의 풀코스 최고 기록은 2003년 동아마라톤에서 세운 3시간 6분이다. 스님은 지금까지 30회 정도 풀코스를 뛰었다. 그리고 2003년부터는 철인 3종 경기에도 도전한다. 2010년부터는 철인3종 경기를 중단하고 100km가 넘는 울트라마라톤을 시작한다. 2011년 토안을 돕기 위해 뛰었던 108km를 시작으로 2011년 5월에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안전도 지원을 위해 200km를 뛰었고, 같은 해, 9월에는 다른

‘후원’ 홍보 말대신 마라톤으로

1km 마다 100원씩 모금

시력없고 ‘위로’ 소중함 알게돼

외국인도 우리사회의 분명한 일원

내달 26일 독일서 700km 달릴 예정

마라톤은 ‘나’를 바라보는 수행

화 모자가족 공동주택건립을 위해 한반도 횡단 308km를 뛰었다. 2012년 1월에는 베트남으로 건너가 초등학교에 화장을 지어주기 위해 500km를 뛰었고,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올 2월 2일까지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쉼터 마련을 위해 4대강 1000km를 뛰었다.

“그런데 왜 외국인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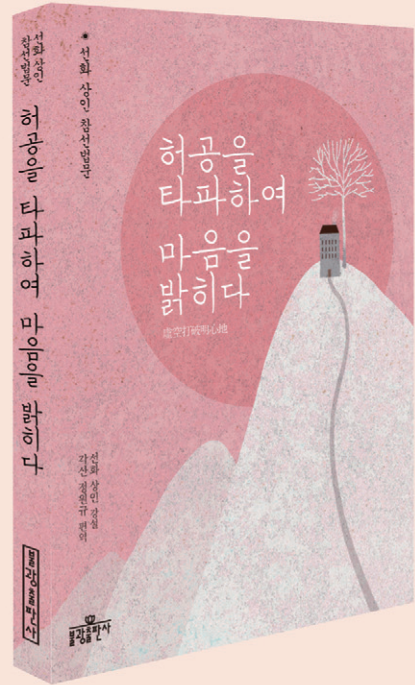
“물론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나 제도는 많이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는 기회와 창구가 많다는 거죠. 반대로 해외에서 이주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여러 형태의 이주민들은 그런 기회나 창구가 거의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그들이 손수 그 기회를 활용한다는 것도 어렵구요. 그 이유는 우리사회가 그들을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함께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편견과 멸시죠. 그들은 분명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이 사회에 무언가 작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소외되고 불행해진다면 그 영향이 우리 사회에 반드시 미친다는 것이죠. 쉬운 예로 모든 범죄는 대부분 상황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범죄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극복할 수 없는 상



진오 스님은 지난해 11. 11~2. 2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쉼터 마련을 위해 4대강 1000km를 뛰었다.

중국 선종 오가의 법을 이은 허운 대사의 법제자, 중국 위양종(沩仰宗)의 제9대 조사 선화(宣化) 상인(上人)의 활발한 해설

선화 상인 참선법담



- 왜 참선을 해야만 하는가?
- 어떻게 참선을 해야 하는가?
- 무엇이 참선의 요결인가?
- 참선 수행에서 만나는 경계는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선화 상인 강설, 각산 정원규 편역 228쪽 | 값 9,000원



가슴이 부르는 만남이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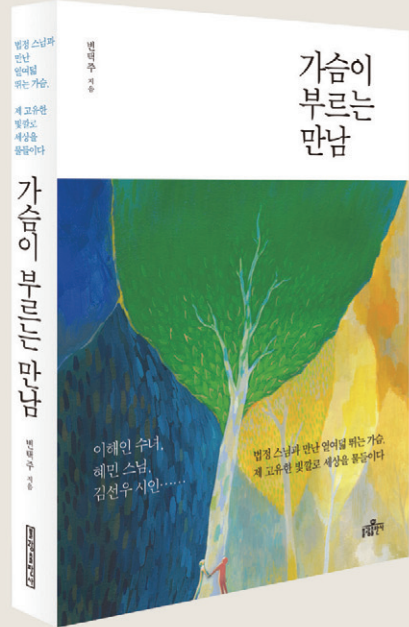
희망이 있는 것이다!

이해인 수녀, 혜민 스님 김선우 시인.....

열여덟 멘토의 울림 깊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법정 스님 가르침

“그 사람 일생이 내게 오는 건 이 순간뿐인데 놓치고 후회 말고 잘해 드리자,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사람들이 날 만나면 기쁘다니까 보여줄 수 있을 때 가까이 보여드리지.' 하는 마음이에요.” - 이해인 수녀

“아무리 좋은 말이나 관심도 내가 평가받다는 느낌이 들면 싫어해요.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고 비취 주세요. 따뜻하게, 그게 사랑이에요.” - 혜민 스님



가슴이 부르는 만남 변태주 지음 | 352쪽 | 15,000원



진소 스님은 ... 1980년 당시 열아홉 살 고3 때 속리산 범주사에서 출가했다. 1981년 통도사에서 사미계, 1985년 부산 범어사에서 구족계를 수지했다. 동국대학교 선학과와 사학과를 졸업했고, 동대학원 사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조계종 총무원 사서실 차장과 포교원 포교실 포교사를 지냈으며, 금오종합사회복지관 부관장을 지냈다. 현재 구미 대둔사 주지와 (사)꿈을이루는사람들 대표, 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다.

황들이 범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외국인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기로 마음먹은 그들이라면 그들의 입은 선이든 악이든 모두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업들은 모두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때 이 일은 누군가 분명히 해야 할 일이고, 불제자인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스님은 부처님도 출가 후 평생을 이방인으로 살았다며, '우리나라 사람', '다른 나라 사람'의 경계를 허무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이 일은 아무래도 출가자인 본인의 숙제 같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일하고 월급 못 받는 노동자들이 상담을 많이 옵니다. 그리고 국제 결혼한 이주여성 가운데 남편의 폭력을 피해 나온 여성과 아이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불교의 인간 평등과 생명존중의 가르침에 부합되지 못하는 일들입니다. 평생을 길 위에 계셨던 부처님을 생각해 보면 어디서 온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 또 달리시나요?"
"3월 25일에 독일로 갑니다. 26일부터 4월 9일까지 700km를 달릴 예정입니다."
스님은 과독광산근로자 50주년 및 한·독 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한국 내 다문화모자란 및 이주노동자

지원기금 마련을 위해 독일에서 후원금을 모금할 예정이다. 1km 땀 때마다 0.1우로의 후원금을 받는다. 우리 돈 146원이다. 2011년 '백 원의 기적'을 이뤘던 스님은 이제 '0.1우로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 다시 달린다. 그리고 스님은 10월에 일본에서 1,000km에 도전할 계획이다.
"마라톤은 나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결국 수행이죠. 출가자의 본분인 공부와 해탈은 선방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출가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의 가슴 속에도 늘 출가발심의 원력이 들쭉거리고 피고지고 합니다. 사바중생의 지나칠 수 없는 염에 불들려 본 분사를 잊고 살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좀 더 깊이 돌아보면 '본분사' 그것이 한편으로 그것이란 생각을 합니다.
스님은 앞으로 다문화 한 부모 가족을 위한 주택마련과 2세 아이들을 위한 인재양성 기금 마련, 북한이탈 아이들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스님은 그 모든 일들을 불사(佛事)라고 했다. "후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사찰에 가서 기와보사 하는 것과 다를 것 없는 일입니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사)꿈을이루는사람들 후원계좌/ 농협 741092-51-080517 전화 054-458-0755



2011년 진소 스님은 사고로 두개골 절반을 드러낸 이주노동자 토안을 돕기위해 108km 울트라 마라톤을 시작했다. 사진은 당시 출발 모습.

전법일기

절집 49재와 천주교 49일 연미사

지난 2009년,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善終)한 지 49일째 되는 날 경기도 용인 천주교 묘원 성직자 묘역에서는 신자 1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추모 미사가 치러졌다. 이 일을 두고 세간에서는 49재나, 아니냐 하는 문제로 한동안 화제가 올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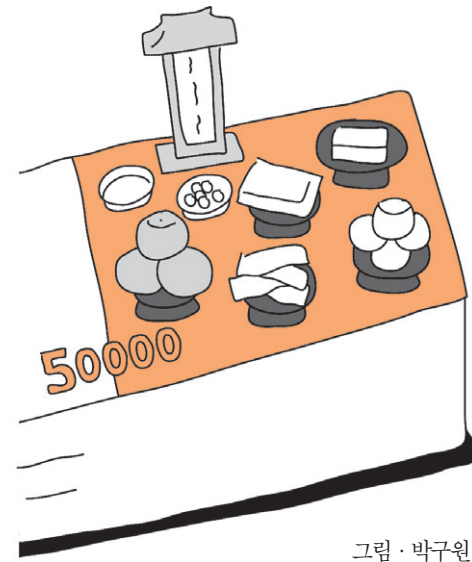
천주교에서는 장례미사를 올리고 나서 '연(練)미사' 또는 '위령(慰靈)미사'라는 걸 올리는데, 유가족들이 원하면 언제든 올릴 수 있다. 적잖은 천주교인들이 49일 되는 날 연미사를 봉헌함으로써 '49재'를 지내고 있는데도 한국 가톨릭 교단에서는 49재를 금지하지도, 공인하지도 않는다. 해당국가의 전통을 가톨릭으로 수용하는 현지화전략 때문일 것이다.

내가 관심을 갖고 본 것은 연미사에 소요되는 경비였다. 어느 수녀에게 물어보았더니 일반적으로 장례미사는 5만 원 이상, 연미사는 2만 원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했다. 그는 "그 액수가 일반적이지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금액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우리 절집의 49재와 천주교의 49일 연미사는 사실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 천주교 미사 때는 망자를 위한 의례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지만 절집은 불전(佛前)에서 시식(施食)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다. 또 성당에서는 음식을 봉헌하지 않지만 절집에서는 밥·떡·과일·나물 등 갖가지 공양물을 올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단순하게 생각한다. 천주교의 49재는 비용이 저렴하지만 불교는 5백만 원, 1천만 원으로 너무 비싸다는 것. 그러나 불교에 대한 인식이 좋을 리가 없다.

절집 49재비, 너무 비싸다



그림·박규원

49재 사찰운영 방편 아니라 슬픈 신도들 위로하는 자리여야 참석할 비불자에게 불심 심어주

인생의 통과의례인 관혼상제를 보면 불교의 현실이 보인다. 문제는 이 가운데 불교가 주도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은 49재를 포함, 상례 뿐이라는 데 있다. 절집에서 성인식은 생소한 용어이고, 결혼식은 민간 사업자와 타종교에서 주도하고 있다. 제례는 기독교인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치르고, 불자들조차 대부분 유교식 제사를 지내고 있다. 통과의례만 보더라도 불교가 기독교에 얼마나 밀리고 있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일반적인 절에서는 49재가 들어오면 살림에 숨통이 튼다. 팍팍하던 절 살림에 윤기가 돈다. 심지어 재를 절 운영의 중심에 두어서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을 정도다. 그러나 절 살림을 위해 지금처럼 계속 고가(高價)를 유지하게 될 경우 민심 이반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데 있다. 신심 깊은 불자라 하더라도 부모의 49재를 위해 5백만 원, 1천만 원을 지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49재를 지내지 않는 불자가 점차 늘어나고, 설사 지낸다 하더라도 막대한 지내는 경우가 많다.

보성선원의 49재비는 2백만 원이다. 일곱 번 재를 지내는 동안 매번 과일 일곱 가지와 나물·부침개를 각각 5가지씩 올린다. 가장 좋은 과일을 쓰고 넉넉히 올리는 편이어서 실제로 그 액수로는 공양물에 대한 비용이다. 내가 이렇게 재비를 낮출 수 있었던 것은 지난 글에서 밝힌 것처럼 사찰을 회비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나는 49재가 사찰 운영의 방편이 아니라 슬픔에 잠긴 신도들을 위로하는 자리여야 하고, 재에 참석한 비불자에게 불심을 심어주는 결연의 자리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 49재비는 1백만 원 이하로 낮아져야 하고 공양물과 의식 전반에 걸친 중단적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타종교의 적극적 도전에 대해 교세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49재와 상례에서조차 타종교에 밀리게 되면 불교가 이 땅에서 부흥하는 것은 요원하다.



한복 스님(재)선학원 대구 보성선원 주지

찬덕불교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LED 인등·LED 전구



* 사찰명 인쇄시 제작기간이 소요되오니 예약 주문 바랍니다 *

전선(케이블)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 제품은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 흥은사



운장대 인등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LED 인등·LED 전구



흥은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신상품 찬덕 LED 전구

-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립니다

Table comparing general LED bulbs and Chanduk LED bulbs in terms of power, efficiency, and price.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